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I. 주요국 경제 동향	1
II. 국내 경제 동향	4
I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7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10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12

확인 : 팀 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3779-5327)
 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조 사 역 나혜영 (3779-5709)
 nhy@koreaexim.go.kr

I. 주요국 경제 동향

1. 미국

- 허리케인 하비(Harvey)의 피해가 경제지표에 반영되며 산업생산·소매판매 등 감소, 뒤이은 허리케인 어마(Irma) 또한 향후 경기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산업동향) 8월 산업생산은 허리케인 ‘하비’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감소 전환 [7월:0.4%→8월:△0.9%], 8월 제조업지수*는 ‘11년 4월 이후 최고치(58.8) 기록, 8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2% 감소[7월:0.3%]하여 금리인상에 부담으로 작용
 - *ISM 제조업지수(기준=50): (‘17.5)54.9 → (6)57.8 → (7)56.3 → (8)58.8
 - (수출입) 7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6월:6.1%]한 1,944억 달러, 7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5.1% 증가[6월:4.8%]한 2,381억 달러 기록
 - (고용·물가) 8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1%p 증가한 4.4%로 자연실업률(4.7%) 하회, 7월 근원PCE물가지수* 증가율(1.4%)은 연준 목표치(2.0%) 미달, 8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 등 에너지 가격과 주거지수 등이 상승하며 전년동기대비 1.9% 상승
 - *근원PCE물가지수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17.4)1.6 → (5)1.5 → (6)1.5 → (7)1.4

2. 유로존

- 생산·고용 등 경제지표 탄탄한 회복세 시현, ECB ‘17년 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1.9% → 2.2%)
 - (산업동향) 7월 산업생산은 자본재, 내구재 등의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 전환[6월:△0.6%], 8월 제조업 PMI*도 상승세 지속(76개월래 최고치), 7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로 감소 전환[6월:0.6%]
 - *제조업 PMI(기준=50): (‘17.5) 57.0 → (6) 57.4→ (7) 56.6 → (8) 57.4
 - (수출입) 7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6월:10.7%]한 2,105억 달러, 7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6월:11.9%]한 1,886억 달러로 증가폭 확대
 - 유로화 기준으로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6.5%, 8.3% 증가[6월:7.4%, 8.5%]하여 증가폭 축소
 - (고용·물가) 7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9.1%로 ‘09.2월 이후 최저 수준 유지, 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여 4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3. 일본

□ 소비·투자 호조,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지속

- (산업동향) 7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Delta 0.8\%$ 로 감소 전환[6월:2.2%]하였으나, 8월 제조업 PMI*는 12개월 연속 기준선(50) 상회, 7월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1.1% 로 증가폭 확대[6월:0.2%]

*제조업 PMI(기준=50): ('17.5) 53.1 → (6) 52.4 → (7) 52.1 → (8) 52.2

- (수출입) 7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6월:0.6%]한 587억 달러, 7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6.1% 증가[6월:5.8%]한 557억 달러 기록하며 증가폭 확대

- 엔화 기준으로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14.5%, 14.5% 증가[6월:9.6%, 15.2%]

- (고용·물가) 7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2.8% 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 7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0.4% 상승[6월:0.4%]하며 低물가 지속

*7월 전체 유효구인배율이 1.52배(구직자 100명당 152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로 43년 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1.01배로 전월과 동일

4. 중국

□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이 모두 예상 하회, 경기 둔화 경계감 지속

- (산업동향) 8월 산업생산 전년동기대비 6.0% 증가[7월:6.4%], 8월 소매판매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7월:10.4%]하여 상승폭 둔화, 8월 제조업 PMI*는 13개월 연속 기준선(50) 상회

*제조업 PMI(기준=50): ('17.5) 51.2 → (6) 51.7 → (7) 51.4 → (8) 51.7

- (수출입) 8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한 1,992억 달러[7월:7.2%] 기록하여 증가폭 축소, 8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한 1,572억 달러[7월:11.0%] 기록하여 증가폭 확대

- (물가) 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1.8% 상승하며 시장전망치(1.6%) 및 전월치(1.4%)를 상회

※ 중국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조사실업률”이 아닌 “등기실업률”을 발표(4% 내외), 실제 실업률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므로 신뢰 가능한 지표 개발 전까지 고용 관련 내용 생략

<참고> 해외경제 주요 지표

(증감률, %)

구분	'15년	'16년				'17년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	2.9	1.5	0.5	0.7	0.4	0.3	0.7	-	-	-
	산업생산(전기비)	△0.7	△1.2	△0.2	0.2	0.2	0.4	1.4	0.2	0.4	△0.9
	소매판매(전기비)	2.6	3.0	1.5	1.0	1.5	1.0	0.3	△0.1	0.3	△0.2
	수출(전년동기비)	△4.7	△2.5	△4.6	△0.6	1.4	6.8	5.7	6.1	4.9	-
	수입(전년동기비)	△3.6	△1.9	△3.7	△1.4	2.7	7.3	6.6	4.8	5.1	-
	실업률	5.3	4.9	4.9	4.9	4.7	4.7	4.4	4.4	4.3	4.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1.3	1.1	1.1	1.8	2.6	1.9	1.6	1.7	1.9
유로지역	GDP성장률(전기비)	2.0	1.8	0.3	0.4	0.6	0.5	0.6	-	-	-
	산업생산(전기비)	2.1	1.5	△0.1	0.4	1.0	0.1	1.2	△0.6	0.1	-
	소매판매(전기비)	2.6	1.4	0.2	0.5	1.0	0.5	0.8	0.6	△0.3	-
	수출(전년동기비)	△12.4	0.2	△2.0	1.2	2.2	4.1	7.7	10.7	12.8	-
	수입(전년동기비)	△14.6	△1.3	△4.7	△0.5	2.4	7.4	11.6	11.9	14.6	-
	실업률	10.9	10.0	10.1	9.9	9.7	9.5	9.2	9.1	9.1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1	0.3	0.7	1.8	1.5	1.3	1.3	1.5
일본	GDP성장률(전기비)	1.1	1.0	0.3	0.3	0.4	0.4	1.0	-	-	-
	산업생산(전기비)	△1.2	△0.2	0.2	1.6	1.9	0.2	2.1	2.2	△0.8	-
	소매판매(전기비)	△0.4	△0.5	0.0	0.5	1.5	△0.2	0.7	0.2	1.1	-
	수출(전년동기비)	△8.8	2.3	3.2	7.3	6.4	12.8	6.2	0.6	6.2	-
	수입(전년동기비)	△19.8	△6.5	△7.3	△3.0	0.6	11.9	10.9	5.8	6.1	-
	실업률	3.4	3.1	3.2	3.0	3.1	2.9	2.9	2.8	2.8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8	△0.1	△0.4	△0.5	0.3	0.3	0.4	0.4	0.4	-
중국	GDP성장률(전기비)	6.9	6.7	1.9	1.8	1.7	1.3	1.7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1	6.0	6.1	6.2	6.1	6.8	6.9	7.6	6.4	6.0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7	10.4	10.2	10.5	10.6	10.9	10.7	11.0	10.4	10.1
	수출(전년동기비)	△3.0	△7.7	△6.4	△7.0	△5.3	7.8	9.0	11.3	7.2	5.5
	수입(전년동기비)	△14.3	△5.5	△7.1	△4.4	2.7	24.0	14.4	17.1	11.0	13.3
	실업률 ²⁾	4.1	4.0	4.1	4.0	4.0	4.0	4.0	-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2.0	2.1	1.7	2.2	1.4	1.4	1.5	1.4	1.8

주 : 1) '17년 3월호부터 수출액·수입액 기준통화를 USD로 통일함에 따라 증감률에 변동이 있음

변경 전	
(기재부 「최근경제동향」기준)	
미국, 중국	USD
유로지역	EUR
일본	JPY

변경 후	
(Bloomberg 기준)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USD

2)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등기실업률로, 비농업호구·나이제한·노동능력 보유·실업보험 납부기간 1년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자로 등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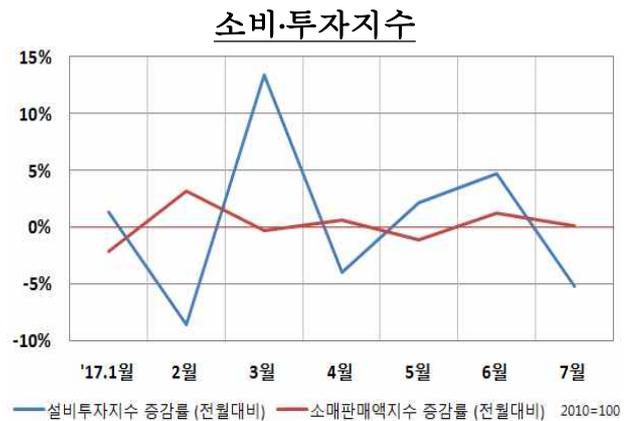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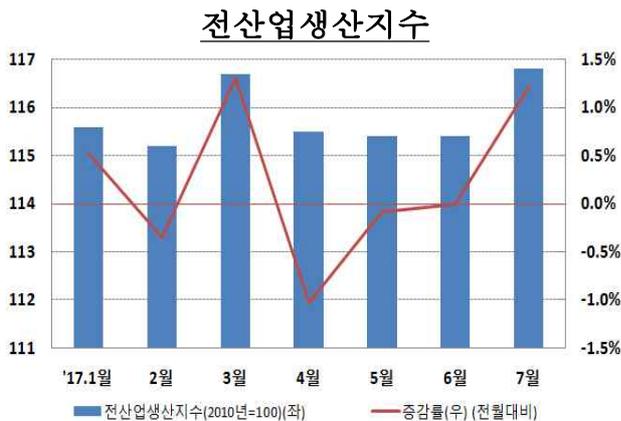
3)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Bloomberg,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Ⅱ. 국내 경제 동향

1. 산업활동 : 7월 산업생산 4개월 만에 반등, 소비활동 소폭 개선, 설비투자 감소

- (생산) 7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2% 증가한 116.8**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광공업(1.9%), 서비스업(0.6%), 건설업(3.6%)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증가
- (소비)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0.2% 증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화장품 등 비내구재($\Delta 0.6\%$),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Delta 0.2\%$)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5%)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증가
- (투자) 7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Delta 5.1\%$ 감소** <전년동월대비 25.0 증가>,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3.6% 증가**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
 - 설비투자는 일부 반도체 회사의 설비 증설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어 전월대비 감소,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증가
-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100.7**,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한 101.7(2010=100)**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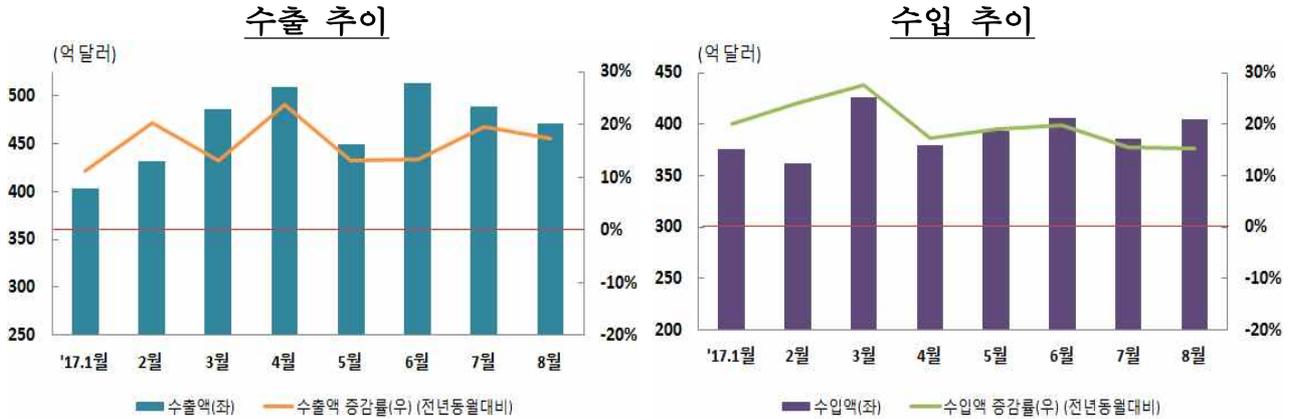
2. 수출입 현황

□ (수출) 8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17.3% 증가**[7월:19.5%]한 **471억 달러**로 견조한 증가세

- 반도체(60.0%)·철강제품(13.7%)·석유제품(36.2%)·승용차(26.0%)·자동차부품(1.2%) 등 증가, 선박(△25.9%)·무선통신기기(△16.8%)·액정디바이스(△2.8%) 등 감소

□ (수입) 8월 수입 전년동월대비 **15.3% 증가**[7월:15.5%]한 **405억 달러**로 증가세 지속

- 조제식품·가전제품 등 소비재(14.8%), 원유·가스·석탄·철광 등 원자재(15.7%), 반도체·기계류·제조용장비 등 자본재(15.0%)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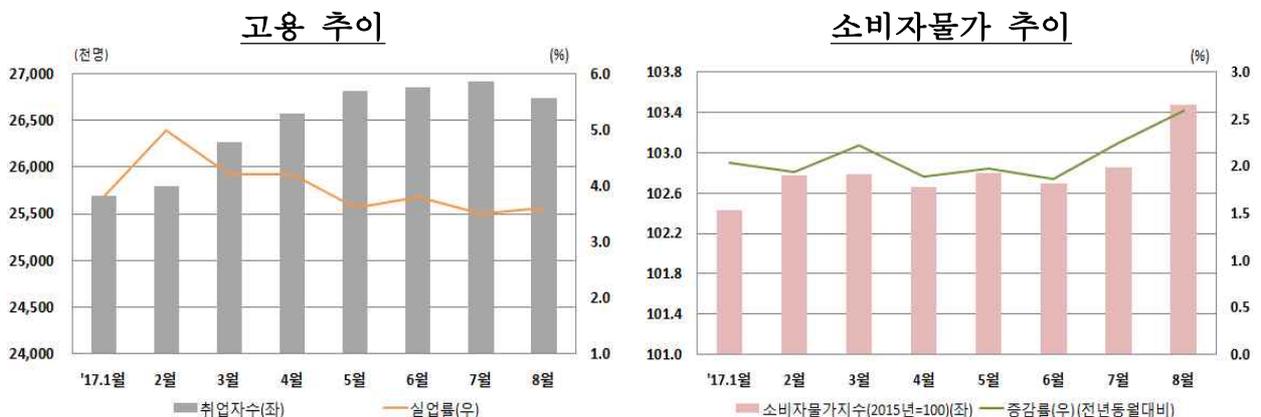
3. 고용 및 물가

□ (고용) 취업자 증가폭이 **21만 2천명**(전년동월대비)에 그쳐 **4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

- 8월 취업자는 **2,674만명**,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61.1%**
- 8월 실업자 **100만 1천명**,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과 동일
- 8월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지속 [5월162 → 6월149 → 7월101 → 8월34 (단위:천 명)]
- 8월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9.4%**,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한 22.5%**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

□ (물가)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전월대비 0.6% 상승>

- 식료품·비주류음료(7.4%), 주택·수도·전기·연료(3.9%), 음식·숙박(2.5%), 교통(1.6%), 기타상품·서비스(2.6%) 등 11개 부문 상승, 오락·문화(△1.1%)는 하락



<참고> 국내경제 주요 지표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GDP성장률(전기비,%)	2.8	2.8	0.9	0.5	0.5	1.1	0.6	-	-	-
전산업생산지수 ¹⁾	-	-	112.9	113.9	114.3	115.8	115.4	115.4	116.8	-
증감률(전기비,%)	-	-	1.3	0.9	0.4	1.3	△0.3	0.0	1.2	-
소매판매액지수 ¹⁾	-	-	120.0	118.6	121.1	120.5	121.9	122.5	122.7	-
증감률(전기비,%)	-	-	2.0	△1.2	2.1	△0.5	1.2	1.2	0.2	-
설비투자지수 ¹⁾	-	-	110.5	108.4	117.1	123.7	129.1	134.1	127.2	-
증감률(전기비,%)	-	-	5.1	△1.9	8.0	5.6	4.4	4.8	△5.1	-
수출액(억불) ²⁾	5,268	4,954	1,260	1,219	1,324	1,321	1,471	513	488	471
증감률(전년동기비,%)	△8.0	△5.9	△6.7	△5.0	1.8	14.7	16.7	13.4	19.5	17.3
수입액(억불) ²⁾	4,365	4,062	993	1,025	1,106	1,163	1,179	406	386	405
증감률(전년동기비,%)	△16.9	△6.9	△10.1	△5.1	4.1	24.0	18.8	19.8	15.5	15.3
실업률 ³⁾ (%)	3.6	3.7	3.8	3.6	3.2	4.3	3.9	3.8	3.5	3.6
소비자물가지수 ⁴⁾	100.0	101.0	100.8	101.0	101.5	102.7	102.7	102.7	102.9	103.5
증감률(전년동기비,%)	0.7	1.0	0.8	0.7	1.5	2.1	1.9	1.9	2.2	2.6

주 : 1) 계절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2010년=100) 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리일 기준
 3) 원계열(original series) 4) 2015년=100
 5)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Ⅲ.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동향

- **美장기금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9.3)으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며 하락, 이후 허리케인 ‘어마’의 위력이 예상보다 약화되고 북한이 9.9절(정권 수립일) 미사일 도발을 단행하지 않자 시장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상승, 美 단기금리는 8월 물가지표 호조로 연말 금리인상 기대감이 커지며 강보합

* 5일(현지시간)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가 前거래일 대비 25% 급등

- 美국채(3M,%): 1.083(8.1) → 1.014(9.1) → 1.034(9.11) → 1.039(9.19)
- 美국채(10Y,%): 2.255(8.1) → 2.170(9.1) → 2.129(9.11) → 2.247(9.19)

- **국고채금리(韓)**는 북한리스크로 글로벌 금리 흐름과의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어 단기적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될 전망

* 북핵 실험 직후인 5일에는 10년물 기준 韓美금리차가 24.65bp까지 벌어지며 2년 1개월만에 최대치 경신 (8월 한달 평균 스프레드:8.28bp)

- 국고채(10년물,%): 2.258(8.1) → 2.271(9.1) → 2.251(9.11) → 2.294(9.19)



2. 환율 동향

- **(국제환율) 美 달러화**, 쌍둥이(하비,어마) 허리케인 피해와 트럼프 행정부의 弱달러 옹호 및 미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약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피해복구 수요 및 금리인상 기대감 등으로 다소 반등할 것으로 예상

- 달러인덱스: 93.0(8.1) → 92.8(9.1) → 91.9(9.11) → 91.8(9.19)

- **유로화**는 실물 경기지표 호조, 달러 약세 흐름 등의 영향으로 달러대비 강세 지속

- 달러/유로: 1.180(8.1) → 1.186(9.1) → 1.195(9.11) → 1.199(9.19)

- **엔화**는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상대적 가치가 부각되어 강세, 이후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예고함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아베노믹스) 지속 기대감이 형성되며 **약세 전환**

- 엔/달러: 110.4(8.1) → 110.3(9.1) → 109.4(9.11) → 111.6(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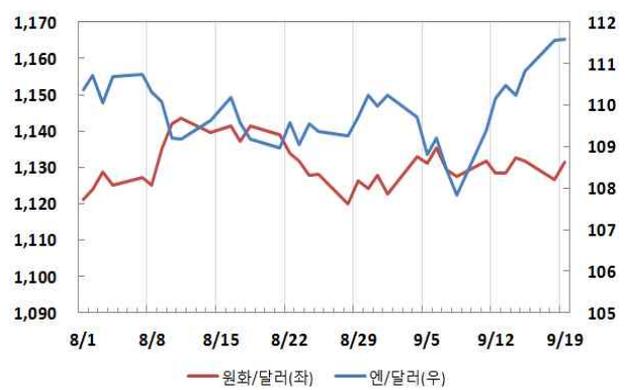
- **(원화환율)**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환율상승(원화약세) 흐름이 우세하였으나, 네고물량 집중 및 글로벌 달러약세 구도 등 환율하락 요인이 혼재되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원화/달러: 1,121(8.1) → 1,123(9.1) → 1,132(9.11) → 1,131(9.19)

달러 지수



달러 환율(對원화, 對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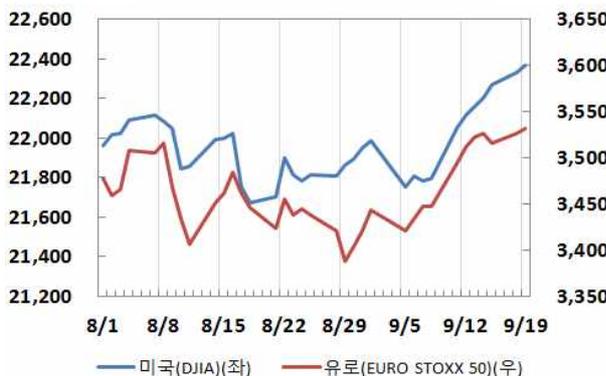


3. 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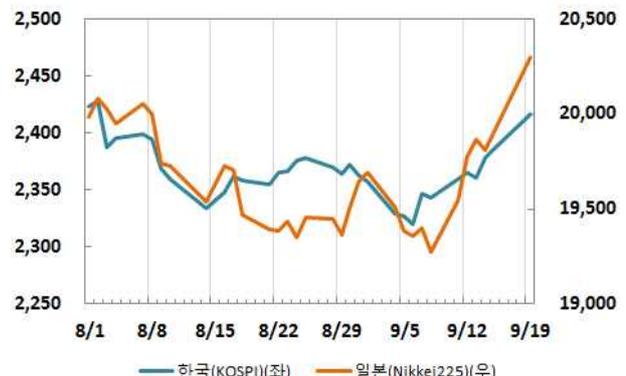
-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월초 북한리스크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허리케인 ‘어마’ 약화, 므누신 재무장관의 올해 세계개편 단행 강조(9.12,현지시간) 등으로 상승세, **코스피 지수**는 북한 6차 핵실험 여파로 급락하였으나, 이후 美증시 혼풍 및 IT·반도체 관련 대형주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 시현

구 분		‘17.8.1	‘17.9.1	‘17.9.19
미국	Dow Jones	21,964	21,988	22,371
유로	Euro Stoxx	3,477	3,444	3,531
한국	KOSPI	2,423	2,358	2,416
일본	Nikkei225	19,986	19,691	20,299

주가지수(미국, 유로지역)



주가지수(한국, 일본)



<참고>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15년	'16년			'17년					
			2/4	3/4	4/4	1/4	2/4	7월	8월	9.19	
금리 (%)	정책	미국 FF금리 ^{주)}	0.25-0.50			0.50-0.75	0.75-1.00	1.00-1.25			
		일본 IOER금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로존 금리	0.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제	미국 국채(3M)	0.153	0.261	0.277	0.505	0.757	1.027	1.085	0.994	1.039
		미국 국채(10Y)	2.268	1.484	1.576	2.445	2.386	2.301	2.297	2.121	2.247
		일본 국채(10Y)	0.265	△0.233	△0.076	0.043	0.070	0.085	0.080	0.008	0.027
	국내	국고채(3Y)	1.662	1.247	1.247	1.638	1.662	1.698	1.724	1.747	1.779
		국고채(10Y)	2.076	1.469	1.398	2.074	2.177	2.214	2.226	2.262	2.294
국제환율	¥ / U S \$	120.4	102.6	100.8	116.6	111.8	112.0	110.6	110.6	111.7	
	U S \$ / €	1.093	1.109	1.122	1.045	1.068	1.144	1.173	1.187	1.199	
원화환율	₩ / U S \$	1,173	1,152	1,101	1,208	1,118	1,144	1,119	1,128	1,131	
	₩ / 1 0 0 ¥	974	1,123	1,092	1,035	1,000	1,021	1,012	1,020	1,013	
주가	미국 Dow Jones	17,425	17,930	18,308	19,763	20,663	21,350	21,891	21,948	22,371	
	일본 Nikkei225	19,034	15,576	16,450	19,114	18,909	20,033	19,925	19,646	20,299	
	유로 Euro Stoxx	3,268	2,865	3,002	3,291	3,501	3,442	3,449	3,421	3,531	
	코스피	1,961	1,970	2,044	2,026	2,160	2,392	2,403	2,363	2,416	
	코스닥	682	675	681	631	619	669	650	658	674	

주 : '16년 12월 14일, '17년 3월 15일, '17년 6월 14일 각각 0.25bp 인상

자료 : 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원, 블룸버그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유가 : 미 허리케인 영향으로 하락한 이후 미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

- 8월 중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배럴당 50달러 선이 붕괴된 이후 9월 들어 정제시설 재가동에 따른 수요 증가, IEA의 공급과잉 완화 전망 등으로 유가 상승하여 50달러대 회복

※ 두바이유(\$/bbl): (8.17일) 48.65 → (9.15일) 53.64

- 9월 초 하비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난 멕시코 연안 정제시설들이 점차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EA는 9월 보고서에서 원유시장이 산유국들의 생산량 감소와 유럽, 미국 등의 견조한 수요 증가 등으로 공급과잉 상황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밝힘

□ 천연가스 가격 : 8월 중순 이후 소폭 상승하여 mmBtu당 3달러선 회복

- 미 여름철 성수기 시즌 종료에 따른 냉방수요 기대감 둔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2달러 후반에서 보합세를 보이다가 9월 다섯 째 주 미국 중부 및 동부지역 기온이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보되며 막바지 냉방수요 기대감으로 9월 중순 3달러대로 상승

□ 연료탄 가격 : 5월말 이후 가격상승세 지속으로 9월 중순 톤당 100달러대 돌파

- 중국 등 여름철 전력 사용 증가에 따른 석탄수요 증가와 인도의 위험성 높은 탄광 폐쇄 계획 등 생산 감소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9월 중순 톤당 100달러대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 갱신(\$100.25/톤, 뉴캐슬FOB, 9.15일)

□ 주요 광물자원 가격 : 전기동 등 비철금속은 상승세 지속으로 9월초 연중최고치 기록, 철광석 하락세로 전환, 우라늄 가격 약세 지속

- 전기동 가격은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6월 이후 가격상승세를 지속하며 9월 초 3년래 최고치 기록
- 니켈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노천광산 채굴금지 유지에 동의하고, 중국 철강시장 강세 영향으로 니켈가격이 동반상승하는 등 9월초 연중최고치 기록
- 아연 가격도 투기적 포지션 확대, 비철금속 가격 강세에 동반 상승하며 9월초 연중 최고치 기록

- 철광석 가격은 고품위 철광석 수요 증가, 투기적 포지션 확대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며 8월말 톤당 80달러선에 육박한 이후 중국 철강공장들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철광석 수요 부진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
- 우라늄은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로 6월 초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파운드당 20달러선의 가격약세 지속

주요 자원가격 추이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연중 최고	연중 최저	
		1/4	2/4	7월	8월	9.16일			
유가 (\$/배럴)	Brent	56.82	52.83	48.77	52.72	52.38	55.48	57.1 (1.6.)	44.82 (6.21.)
	WTI	53.72	50.6	46.04	50.17	47.23	49.91	54.45 (2.23.)	42.53 (6.21.)
	Dubai	53.83	50.78	46.47	50.38	49.26	54.19	55.45 (2.3.)	43.50 (6.22.)
천연가스 (\$/백만BTU*)	3.724	3.190	3.035	2.794	3.04	3.15	3.424 (5.12.)	2.564 (2.21.)	
연료탄(전력용) (\$/ton)	92.00	82.6	80.25	90.94	95.00	100.25	100.25 (9.15.)	73.15 (5.19.)	
우라늄 (\$/lb)	20.4	23.25	20.5	20.05	20.15	20.60	26.75 (2.10.)	19.15 (6.5.)	
철광석 (\$/ton)	78.87	80.39	64.95	73.7	78.91	71.76	94.86 (2.21.)	53.36 (6.13.)	
전기동 (\$/ton)	5,501	5,849	5,908	6,347	6,792	6,535	6,904 (9.5.)	5,466 (5.8.)	
니켈 (\$/ton)	10,035	9,875	9,280	10,235	11,620	11,150	12,150 (9.5.)	8,715 (6.2.)	
아연 (\$/ton)	2,563	2,783	2,754	2,802	3,140	3,087	3,194 (9.5.)	2,436 (6.13.)	

주 : 유가는 WTI유 선물 익월물/브렌트유 ICE 익월물/두바이유 현물가격, 천연가스/우라늄은 뉴욕 상업거래소(NYMEX), 연료탄은 뉴캐슬 FOB, 철광석은 Fines 현물가격으로 중국수입가 CFR, 전기동/니켈/아연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bbl)

기준 유종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48.67	43.33	51.64	48.15	47.74	47.83	48.83
Brent	52.32	43.74	53.57	49.59	50.79	50.35	51.07

주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전망시기: 2017년 9월>, 회색부분이 전망치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 조선: 8월에도 부진 지속

- '17년 8월 기준 누적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221% 증가한 348만CGT를 기록
 - 8월 수주량은 소형 컨테이너선 6척과 중대형 서틀탱커 등 총 9척에 그쳐, 7월 8척 수주에 이어 극심한 수주 부진이 지속되는 양상임
- '17년 8월 기준 누적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한 98.7억 달러를 기록
 - 8월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29.1% 증가한 5.2억 달러
- Clarkson의 8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7 point 상승한 123.93을 기록
- 8월 누적선박수출은 건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해양플랜트 수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6.5% 증가한 324억 달러

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4	2/4	7월	8월
수주 실적	304.7 (△40.0)	463.3 (52.0)	329.4 (△28.9)	236.7 (△28.2)	46.1 (△80.9)	98.7 (329.0)	22.3 (375.3)	65.9 (385.8)	5.3 (651.8)	5.2 (29.1)
수출 실적	397.4 (△29.8)	371.7 (△6.5)	398.9 (7.3)	401.7 (0.7)	342.7 (△14.6)	324.0 (36.5)	69.8 (△12.2)	169.3 (60.0)	60.9 (208.2)	24.1 (△25.8)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개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미국 원유시추기 수 감소세로 전환

- 미 원유 시추기 수가 작년 6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8월 둘째 주 768기를 기록했으나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감소하여 9월 셋째 주 749기 기록
 - 특히 하비가 미 텍사스 동남부를 관통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었던 Eagle Ford 지역의 원유 시추기 수가 8월 첫째 주 70기에서 9월 셋째 주 63기로 감소
- Eagle Ford 지역의 시추 계획 절반 이상이 보류되는 등 미국 내 세일 수압파쇄 계획의 약 10%가 지연될 전망으로 이는 향후 유가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 존재

- 하비 피해 지역의 도로 파손 등으로 인근 유전으로의 수송 및 서비스 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EOG Resources와 Marathon Oil 등은 당분간 생산 개시가 힘들 것으로 전망

□ 해외건설: 8월 수주액은 24.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

- '17년 8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아시아 지역 22.4억 달러 수주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 수주가 호조를 보이면서 8월 해외건설 수주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 8월까지 누적수주액 199억 달러로 전년대비 15% 증가했으며,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아시아 49.5%, 중동 45.8%로 두 지역이 전체 수주의 95.3%를 차지
- 하반기 수주액은 중동지역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등 상반기 대비 개선 될 것으로 예상돼, 2017년 전체 수주액은 350억 달러에 달할 전망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분기	2분기	7월	8월
수주실적	649 (9.8)	652 (0)	660 (1.2)	461 (△30.1)	282 (△38.8)	199.7 (15)	93.7 (△17.1)	69.4 (75.9)	12.1 (1.7)	24.4 (174)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해외건설협회

□ ICT: 역대 최대 월간 수출액인 174.9억 달러 달성

- 8월 ICT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9% 증가한 174.9억 달러, 수입은 13.3% 증가한 86.0억 달러, 수지는 88.8억 달러 흑자를 달성
- 반도체(89.3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59.8%↑)는 메모리반도체(60.3억 달러, 91.9%↑)가 최초로 60억 달러대 수출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월간 수출액을 달성
- 디스플레이 패널(28.0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7.6%↑)는 LCD 및 OLED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10개월 연속 수출증가세 유지

- 지역별로는 중국(91.0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20.6%↑), 베트남(22.4억 달러, 50.6%↑), 미국(17.7억 달러, 18.7%↑) 등 주요국에서 수출증가세를 유지

ICT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4	2/4	7월	8월
수출실적	1,552.4 (△0.9)	1,726.8 (11.2)	1,762.3 (2.1)	1,728.8 (△1.9)	1,625.0 (△6.0)	1,240.3 (19.8)	440.1 (18.1)	468.5 (19.7)	157.1 (20.9)	174.9 (23.9)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태양광: 7월 모듈 수출액은 큰 변동이 없으나,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전월대비 15% 감소

- 올해 중국 태양광 수요가 40GW를 넘어서는 등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연초 예상치 75GW를 상회하는 85GW에 달할 전망
- 세계 태양광 설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제품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음
 - 태양광 제품의 대량생산과 기술발전으로 제조단가가 낮아지고 있어 수출 물량이 증가해도 수출액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태양광 제품단가 하락은 석탄 및 가스 등 타 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향후 선도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기술발전 속도도 한층 빨라져 생산단가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태양광 모듈 및 폴리실리콘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분기	2분기	6월	7월
태양전지 모듈	9.7 (7.4)	13.2 (△36.1)	18.9 (43.2)	9.34 (△17.1)	3.54 (△19.5)	4.16 (△19.0)	1.68 (△11.6)	1.63 (△11.6)
폴리실리콘/ 잉곳	13.1 (67.5)	12.7 (△3.6)	12.6 (△0.4)	6.40 (△18.3)	2.82 (△5.4)	2.75 (△25.5)	0.96 (△29.0)	0.82 (△28.1)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무역협회

□ 중소기업: 내수위축 지속으로 체감 업황 부진

- ‘17년 7월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평균가동률은 0.8%p 하락
 -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105.8) 대비로는 1.9% 상승, 전월(113.2)보다는 4.8% 하락한 107.8 기록
 - 가동률은 ‘가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 5개 업종에서 상승했으나, ‘가죽, 가방 및 신발’, ‘비금속 광물제품’ 등 15개 업종에서 하락해 전월대비 0.3%p, 전년동월(73.7%)대비로는 0.8%p 하락한 72.9%
- ‘17년 8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17년 7월보다 3.1p 하락한 80.4
 -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중소기업 경기지수(실적기준)로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 (2010년 이후 최저치 74.3, 최고치 95.6)
 - 내수판매(82.5 → 79.6, 2.9p↓), 수출판매(90.9 → 83.7, 7.2p↓), 자금사정(79.9→ 79.0, 0.9p↓) 등 전 분야에서 하락
- 중소기업대출(+4.7조원 → +3.8조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증가폭은 전월보다 다소 축소

중소기업 주요 업황 지수 추이

구 분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생산지수	(2010년 =100)	103.9 (0.3)	108.6 (0.0)	104.3 (0.0)	110.7 (1.7)	102.0 (-2.0)	108.7 (0.1)	104.0 (-0.3)	115.2 (4.1)	107.3 (5.2)	111.2 (2.3)	113.2 (3.2)	107.8 (1.9)	-
평균가동률	(%)	71.5	72.1	71.8	72.1	72.0	74.0	73.3	73.6	72.7	73.2	73.2	72.9	-
자금대출	(조원)	15.4	16.5	15.8	5.0	9.5	10.1	9.5	1.5	10.3	10.6	1.7	4.7	3.8
중소기업 건강도지수 (SBHI)	경기전반	79.0	82.4	80.8	84.2	78.1	86.6	83.7	81.1	77.9	84.2	83.5	83.5	80.4
	내수판매	78.6	82.1	80.2	84.3	78.1	85.9	83.1	81.9	77.2	83.7	83.0	82.5	79.6
	수출판매	84.4	82.6	80.6	80.4	77.6	86.7	86.0	84.9	86.8	87.9	88.3	90.9	83.7
	자금사정	78.4	80.5	79.7	81.2	77.0	82.8	81.5	79.0	75.5	79.2	78.4	79.9	79.0

주 : 1) 괄호 안은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률
 2) 자금대출은 예금은행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금액으로 기간 중 말잔 증감
 3) 중소기업 건강도지수는 2015.1월부터 중소기업 전산업으로 조사범위 확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